

KOBA 2025
1층 Hall A

음향 & 조명관

주요 전시 업체

비엘에스, 삼아사운드, 사운드스, 다산에스알,
야마하뮤직코리아, 사운드 솔루션, 인강 오디오, 넷기어,
동서테크놀로지, 사운드플랫폼 등

1층 Hall A에서는 음향 & 조명기기들이 전시되었다. 작년보다 규모가 약간 축소된 느낌이었지만 전시 부스에서는 다양한 음향기와 장비, 시스템이 소개되었고,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의 런칭을 통해 업계 동향과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전시장의 여러 곳에선 화려한 조명이 관람객을 맞이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용도의 LED 조명 등이 걸음을 멈추게 했다. 또한, 스피커를 통한 음향과 각종 장비를 체험할 수 있어 전시 관람의 재미를 한껏 높일 수 있었다.



비엘에스

비엘에스는 TASCAM, WAVES, FOCAL, DEITY 등 전문 음향장비 브랜드를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이번 KOBIA 2025 전시회에서도 FOCAL의 하이엔드 스피커, WAVES의 LiveBox, DEITY의 전문 음향장비, TASCAM의 레코더와 믹싱 콘솔, Ferrofish의 모듈형 디지털 오디오 컨버터, BirdDog의 PTZ 카메라 등 다양한 방송장비를 선보였다.



비엘에스 부스 전경

FOCAL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공간은 포칼(Focal)의 주요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직접 청음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었다. 많은 참관객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포칼의 사운드를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청음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공간

포칼의 하이엔드 모델인 TWIN6, TRIO6 BE, TRIO11 BE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각 모델의 소리를 직접 비교해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베릴륨이라는 소재로 트위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스피커의 트위터는 얇고 단단할수록 고음을 더 깨끗하게 재현할 수 있는데, 베릴륨은 그런 특성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한다. 이번에 전시된

포칼 스피커는 베릴륨 트위터를 사용해 특히 고음역에서 뛰어난 해상도와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특히 포칼은 40kHz까지 커버 가능한 고성능 트위터를 특허받은 오목한 돔 구조로 설계해, 응답성, 투명도, 그리고 왜곡 없는 소리를 극대화했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하이엔드 스피커를 직접 비교 청음할 수 있는 기회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각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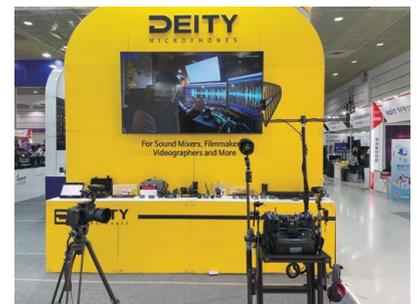
DEITY

한쪽 부스에는 DEITY 사의 전문 음향 녹음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현장에서 녹음을 메인으로 하는 음향 감독들에게 필요한 장비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송신기 2개와 수신기 1개로 구성된 무선시스템은 기존 제품들과 달리, 단순 송수신 기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녹음까지 가능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 절반 가까이 가벼운 무게로 설계된 샷건 마이크는 장시간 촬영이나 이동 촬영에서 유용할 듯했고, 실제로 들어보니 무게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 타임코드 제너레이터가 내장된 슬레이트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 장비 하나로 음향과 영상의 싱크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요즘 유튜브나 콘텐츠 촬영에서도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장비가 있으면 후반 작업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안테나, 스플리터, 수신기, 레코더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하나의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은 이동이 빈번한 촬영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현장촬영에 특화된 구성으로 레코더를 탑재한 UHF 2ch 와이어리스 시스템 및 제품들



KOBA 2025 Review

TASCAM

TASCAM은 포터블 레코더, 고성능 CD 플레이어, 아날로그 레코딩 콘솔, 디지털 믹싱 콘솔, Dante 스테이지 박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Sonicview 시리즈 믹싱 콘솔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TASCAM Sonicview 믹싱 콘솔은 내장 Dante 네트워크, 96kHz/32bit 멀티채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및 충분한 입출력 포트를 갖추고 있다. 각 채널 페이저 뱅크 위에 컬러 터치패널이 있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각 파라미터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 Wi-Fi 라우터를 TASCAM Sonicview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기만 하면 TASCAM Sonicview Contro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격 설정 및 오프라인 편집이 가능해 공연 전 세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복잡한 공연 환경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았다.



Sonicview 24



Sonicview 16

삼아사운드

다양한 음향장비를 수입, 유통하는 삼아사운드는 SHURE, RADIAL Engineering, NEUTRIK, GENELEC, ALLEN & HEATH 등 기존에 선보였던 브랜드에 추가로 HK AUDIO, NNNN, Clear-Com 제품을 추가로 전시했다.



삼아사운드 부스



참관객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SHURE에서는 Content creation, Wireless solutions, 회의용 오디오 솔루션을 테마로 부스를 구성했다.

Content creation에서는 기존 방송용 마이크보다는 MoveMic 88+ 나 MV7과 같은 팟캐스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휴대성이 좋고 연결이 간편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이 중 MoveMic 88+는 블루투스를 통해 직접 스마트폰 연결이 가능하고 USB-C 케이블을 통해서 한번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EQ, 컴프레서, 노이즈 리덕션, L/R 채널 스왑 등 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최대 30m 무선연결을 지원해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손쉬운 사용이 가능해 보였다.

Wireless solutions에서는 Axient Digital PSM이라는 무선 인이어 모니터링시스템과 SLX-D Quad Receivers 라는 무



SHURE의 Content creation



SHURE의 Wireless solutions

선수신기 제품을 전시했는데 최근 새롭게 공개한 Axient Digital PSM은 적은 대역 안에서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ADTQ Quad Transmitter와 ADTD Dual Transmitter이라는 송신기 옵션으로 6MHz당 최대 28채널, 8MHz당 최대 40채널을 지원하고 ShowLink 기능을 통해 엔지니어가 각 수신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ALLEN&HEATH DLIVE S5000



GENELEC 스피커 청음 공간

오디오믹서 제조 브랜드 **ALLEN&HEATH**는 DLIVE S5000, AVANTIS SOLO 같은 중-대형 믹서부터 CQ-18T, CTi1500 같은 컴팩트한 믹서와 SQ-RACK과 같은 랙마운트 형태로 구현한 디지털 믹서 등을 시연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GENELEC**의 스피커 청음 공간이나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 Radial Engineering, 커넥터 제조 브랜드 Neutrik,

오디오 브랜드 HK Audio, NNNN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전시했다. 제품 전시나 시연뿐만 아니라 슈어세킷이라고 하는 인생네컷과 같은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나 제품 관련 퀴즈 이벤트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운더스



사운더스 부스

사운더스는 음향시스템 설계 및 컨설팅 기업으로 DiGiCo, CODA, K-array, ONE SYSTEMS, onpointaudio, AVIOM, RANE 등의 브랜드를 수입, 유통하고 있다.

사운더스 부스에서는 DiGiCo Quantum 338, (동일 스펙에 사이즈만 줄인)326, 225 이 세 가지 믹싱 콘솔을 중심으로 KLANG:vokal 이라는 믹싱프로세서와 Fourier Audio의 transform.engine이라는 라이브나 방송환경에서 VST3(Steinberg 사가 개발한 오디오 플러그인 표준 중 하나) 플러그인을 실행할 수 있는 단말을 시연해 볼 수 있었다.



다산에스알

다산에스알 부스에는 Solid State Logic, RIEDEL, Powersoft 등 다산에스알이 취급하는 여러 브랜드의 대표 제품군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방송용 콘솔부터 초소형 앰프, 영상 전송 인프라까지 다양한 범주의 기술을 아우르고 있었다.



다산에스알 부스 전면

부스의 한쪽 구역에는 **Solid State Logic**의 플래그십 콘솔들이 자리했다. SSL Live L650과 L550 Plus는 대규모 공연과 라이브 방송을 위한 고성능 콘솔로, 특히 L650은 여러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과 라우팅 구성을 갖춘 제품이다. System T 시리즈에서는 S500-32와



SSL System T S500-32 콘솔



SSL Live L650 콘솔

S400-32 두 모델이 전시되었는데, 다양한 터치스크린과 하드웨어 타일이 조합된 모듈형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S400-32는 플라이팩 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는 설계를 통해, 규모가 제한된 방송환경이나 중계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기능의 균형을 맞췄다.

RIEDEL 브랜드는 전시 공간 한쪽을 별도로 차지하고 있었으며, Artist 인터컴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소개되었다. Artist 1024는 2RU 크기 내에서 최대 1024 포트까지 확장 가능한 인터컴 시스템으로, Bolero 무선 인터컴, SmartPanels, Virtual SmartPanel 등 다양한 구성과 연동된다. SmartPanel 계열은 물리적 패널과 가상 패널 간의 자유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해, 실제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구성이었다.

무선 인터컴 제품군 중 Bolero는 최대 250개의 벨트팩과 100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 대응이 가능하며, 'Touch & Go' 방식의 벨트팩 등록, 워키토키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직접 착용해볼 수 있었던 벨트팩은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되어 있고, 실시간 반응 속도도 양호했다. 기본적인 통신 품질은 물론이고, 확장성과 RF 안정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갖춘 구성이었다.



Bolero 무선 인터컴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MediorNet 시리즈였다. 다양한 SDI-IP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비디오 인프라 솔루션으로, SDI 기반 환경에서 IP 기반 제작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ST 2110을 포함한 다양한 표준을 지원하고, 업/다운/크로스 변환, SDR-HDR 변환, 색 보정 등 고급 비디오 처리가 가능한 점은 단순한 라우팅 솔루션을 넘어선다. 방송 환경에서 점



MediorNet MicroN-UHD

진적으로 IP 인프라를 도입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는 과도기적 구조에서 MediorNet은 안정성과 호환성 양쪽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구성이었다.

한편, 다산에스알 부스를 통틀어 전시된 장치 중 가장 작았지만 높은 밀도를 보여준 것은 Powersoft의 신제품 NOTA 142였다. 바지 주머니에도 들어갈 만한 크기의 이 앰프는 벽에 끈으로 걸어 전시할 만큼 가벼웠다. 전시대 위에 놓인 상태에서조차 무게감을 거의 느낄 수 없었고, 크기로 보자면 일반적인 PoE 스위치나 스마트폰보다도 작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과 증폭, 전원 공급을 하나의 이더넷 케이블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들어 있었다. 설치를 단순화하고, 공간과 배선의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벽에 걸어 전시한 NOTA 142

UNICA T 시리즈

또 다른 Powersoft 제품인 UNICA T는 1RU 크기의 고출력 앰프로, 투어링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모델이다. 높은 전력 밀도와 내구성, 그리고 공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이 특징이며, 전체 시스템 관리 또한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UNICA 시리즈를 위한 원격 제어 패널과 연결 구성이 함께 전시되었다.

다산에스알의 전시 부스는 공간 배치 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각 브랜드가 가진 기술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방송, 음향,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현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과 제품이 한 공간에 밀도 있게 배치되어 있어, 특정 기술군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Riedel의 MediorNet과 Powersoft의 NOTA는 각각의 크기와 쓰임새는 전혀 다르지만, 시스템 전환기와 물리적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 아마하뮤직코리아

아마하뮤직코리아는 이번 전시를 통해 AFC Image 시스템, 디지털 믹서 DM7과 DM3, 포터블 PA 시스템 STAGEPAS 200, 모니터 스피커 HS3 및 HS4 등을 선보였다. 기타·드럼 등 악기들도 부스를 구성하고 있었다. 부스 중앙에는 공연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아티스트들이 아마하의 악기와 음향장비를 활용한 무대를 선보였다.



아마하뮤직코리아 부스



전시장에서 DM7을 다뤄보고 있는 방문객들

KOBA 2025 Review

AFC Image

AFC Image는 다채널 스피커 환경을 전제로 한 공간 음향 제어 시스템이다. 물리적인 공간이 제공하는 잔향이나 반사를 모사하고 제어하는 것이 핵심으로, 스피커 배치에 따라 청취자의 감각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노린다. 입력된 음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 출력하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간 음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DM7과 DM3

DM7은 고해상도 AD/DA 변환과 고성능 프리앰프를 기반으로, 방송과 공연 환경 모두에 대응하는 디지털 믹서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 목적에 맞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탑재되어 있다. 하나의 본체를 두 개의 믹서처럼 운용할 수 있는 Split Mode, 다양한 I/O 설정, 확장성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 소형 모델 DM3는 포터블 콘솔로 전시되어 있었다. 6kg대의 경량에, 사용 환경에 따라 리소스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UI 구성과 입력 설정이 특징이다. 터치 기반 UI가 특히 소규모 공연이나 출장 환경을 고려한 듯 구성되어 있었다.

YDM 시리즈와 STAGEPAS 200

프로 오디오 제품 중에는 마이크 제품인 YDM 시리즈가 새롭게 전시되었다. 진동 억제를 고려한 설계로, 라이브와 스튜디오 모두에서 안정적인 음질 확보를 목표로 한 제품이다. 작년 KOBA에 이어 올해도 전시된 큐브형 포터블 PA 시스템 STAGEPAS 200은 배터리 내장과 블루투스, 5채널 입력 등 간단한 세팅에 유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야마하의 신시사이즈를 경험하는 관람객

HS3 및 HS4 모니터 스피커

소형 모니터 스피커 HS3, HS4는 다양한 입력 단자와 함께 Room control, High trim 기능을 갖추고 있다. 벽 가까이 스피커를 배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음역대의 과장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후면 패널을 통해 간단히 설정할 수 있다. 홈 스튜디오, 영상 작업용 오디오 환경에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악기 부문에서는 트랜스어쿠스틱 기타 TAG3를 새롭게 선보였다. 두 개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공진판에 직접 효과를 전달하는 구조였다.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며,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다. 전자드럼 DTX6K5-M은 mesh 패드 기반의 모델로, 반발감과 응답성을 개선한 점이 돋보였다. 다른 악기와 마찬가지로 DTX6K5-M은 전시 부스에서 직접 연주해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SEQTRAK, FGDP 시리즈, DZR 파워드 스피커, PACIFICA 기타, 무선 송신기 YW10T 등 다양한 제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부스 내 무대에서는 제이스 리, 김바다 밴드, 황재영, 어썸 등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야마하 악기와 장비를 활용한 무대를 선보였다.



YDM 시리즈



공연을 위해 부스 중앙에 설치된 무대

사운드 솔루션

사운드솔루션은 MIDAS, STAGETEC, WISYCOM, DPA, ADAMSON 등 주요 프로페셔널 음향 브랜드의 오디오 믹싱 콘솔, RF 장비, 마이크,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사운드솔루션 부스



STAGETEC의 포터블 디지털 콘솔 HD96-AIR

부스 전면에는 **STAGETEC**의 IP 기반 믹싱 콘솔 'AVATUS'와 **MIDAS**에서 작년 새롭게 출시한 포터블 디지털 콘솔 'HD96-AIR'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HD96-AIR는 콤팩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MIDAS**의 플래그십 모델인 HD96-24와 동일한 출력 및 DSP 사양을 지원하는 점이 주목됐다. HD96-AIR는 틸팅 가능한 21인치 고해상도 TFT 멀티터치 스크린과 16채널 페이더 믹서 'FB 16'을 통해 콘솔 제어가 가능하며, 최대 4개까지 확장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ADAMSON의 Fletcher Machine



Fletcher Machine Immersive Sound Program

또한 **ADAMSON**의 이머시브 오디오 렌더링 엔진인 'Fletcher Machine'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함께 소개되었다. 올해는 별도의 실청 시연은 없었지만, 오브젝트 기반 믹싱과 **ADAMSON** 고유의 잔향 시스템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그램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믹서(Mixer), 레이어(Layer) 구성 등 이머시브 오디오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 운용 시의 실용성과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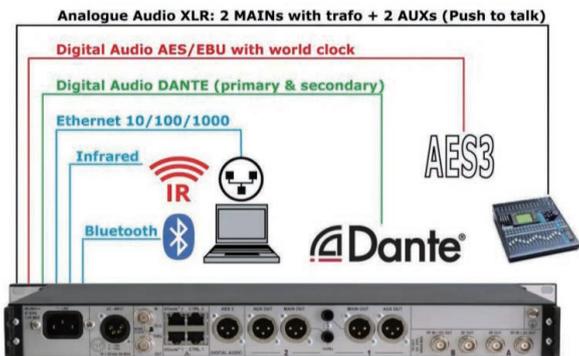
DPA의 마이크로폰 전시

부스 후면에는 **DPA**의 마이크로폰 라인업과 **WISYCOM**의 다양한 무선 장비가 전시되었다. 특히 바디픽 송신기 모델인 MTP61, MTP60, 그리고 PHA60과 함께 와이드밴드 IEM 리시버 MPR50-IEM, TASCAM 전용 케이블(TSC 25) 등이 소개되었다.



WISYCOM Wireless 제품군 전시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은 WISYCOM의 2채널 초광대역 수신기 'MRK980'이었다. 이 제품은 170~1260MHz의 넓은 주파수 범위를 커버하며, 1090MHz의 스위칭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송환경에서도 유연한 주파수 설정이 가능하며, 주파수 사용 제약이 큰 국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 또한 내장된 DSP 프로세서를 통해 Full DSP 처리가 가능하고, Dante 네트워크와도 호환되어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도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병행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WISYCOM MRK980

인강 오디오

프로 오디오 전문 유통사인 인강오디오는 CALREC, MeyerSound, MOGAMI, LECTROSONICS, ARX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전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NAB Show에서 'Product of the Year' 상을 받은 CALREC의 TRUE CONTROL 2.0을 선보였다.



인강 부스 전면



CALREC TRUE CONTROL 2.0 모델 전시



CALREC TRUE CONTROL 2.0

CALREC 디지털 콘솔
ARGO Q



CALREC의 TRUE CONTROL 2.0은 원격 제작(Remote Production)을 위한 차세대 제어 솔루션으로, IP 기반 오디오 콘솔인 ARGO M, ARGO Q 및 TYPE R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오디오 믹싱 리소스인 ImPulseV와 연동이 가능해, 물리적 제약 없이 믹싱 리소스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방송 제작 환경의 유연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사의 이전 버전보다 업그레이드된 CONTROL 2.0은 Fader, Input, Aux Send Level의 제어는 물론, Main, Group, Track 단위의 라우팅과 패닝, EQ 및 Compressor/Limiter/Gate와 같은 다이내믹 기능, Delay, Automix, Insert On/Off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되어 있어 실제 운용 현장에서 높은 실용성을 제공한다. 최근 IP 기반 스튜디오 제작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TRUE CONTROL 2.0은 분산형 제작과 클라우드 기반 믹싱 시스템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인식된다.

함께 전시된 CALREC의 디지털 콘솔 ARGO는 ST 2110 표준을 기반으로 한 네이티브 IP 연결성을 제공하며, 최대 2,384 DSP 라우팅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방송환경에 대응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유연한 모듈형 구조와 높은 호환성은 물론, CALREC 특유의 안정성과 직관적인 운용 인터페이스가 돋보인다.

넷기어코리아

넷기어(Netgear)는 가정용과 기업용 네트워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와이파이 공유기, 스위치, 메시(Mesh) Wi-Fi 시스템, NAS(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등이 있다.

가정용 시장에서는 빠른 속도와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Orbi 메시 Wi-Fi 시스템과 고성능 Nighthawk 공유기로 잘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 시장에서는 ProSAFE 시리즈의 PoE 스위치, VPN 라우터, ReadyNAS 스토리지, 그리고 Insight 앱을 통한 원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넷기어(Netgear)는 방송 및 프로 AV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네트워크 스위치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GSM 시리즈,



넷기어 부스

XSM/VSM 시리즈, 그리고 AV Line M4250 및 M4350 시리즈는 고성능,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방송 제작, 라이브 이벤트, IP 기반 영상 전송 환경을 위한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GSM4212P, GSM4212PX, GSM4230UP 등으로 구성된 GSM 시리즈는 넷기어의 대표적인 관리형 스위치 라인업으로, PoE++ 전력 공급 기능과 정밀한 멀티캐스트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리즈는 특히 NDI, Dante, AES67, AV-over-IP 등 다양한 방송·AV 전송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IP 기반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의 안정적인 전송을 지원한다. 특히 GSM4212PX는 고출력 PoE++ 지원으로 IP 기반 장비 연결에 최적화된 모델로, 이번 전시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GSM4210PD



GSM4230P

KOBA 2025 Review

고성능 코어 스위치인 XSM4328CV와 VSM4320C는 10G 및 40G 업링크 포트를 지원하는 백본급 장비로,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고속 데이터 전송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복잡한 방송 인프라, 고해상도 실시간 전송, 멀티채널 IP 시스템 등에 적합한 제품군이다.

이번 전시에서 넷기어는 AV Line M4250 및 M4350 시리즈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AV-over-IP 시장에 특화된 스위치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M4250 시리즈는 1G 기반의 AV 전용 관리형 스위치로, 깔끔한 랙마운트 디자인과 전면 포트 설계, 팬리스 모델 옵션, 그리고 사전 설정된 AV 프로파일을 갖추고 있어 방송 및 공연 환경에서 간편한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Dante 프로토콜과의 높은 호환성은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AES67 및 ST 2110과 같은 표준도 지원한다.



Dante 네트워크



Dante 네트워크 모니터

한 단계 상위 제품인 M4350 시리즈는 1G, 2.5G, 10G, 25G 포트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하이브리드 IP 방송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M4350 또한 Dante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오디오·비디오 통합 인프라 구축 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다채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핵심 인프라 장비로 주목받고 있다. 넷기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방송과 AV 산업의 흐름이 SDI에서 IP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멀티캐스트 최적



Dante AVIO 어댑터



넷기어 AV 라인 스위치 시리즈

화, PoE++ 전력 안정성, GUI 기반 설정 편의성, 클라우드 연동 관리(Insight)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군을 제안했다. 특히 M4250 및 M4350 시리즈는 KOBA 2025 전시에서 넷기어가 가장 전략적으로 부각한 제품군 중 하나로, Dante 호환성, 설치 효율성, 고급 멀티캐스트 설정 기능 등을 갖춘 실전형 AV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현장 사용자들로부터 기대를 받았다.

동서테크놀로지

동서테크놀로지는 FOLLOW-ME System, AVOLITES 및 JB LIGHTING 등의 조명기기를 전시하였다. 대형부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조명기기를 시연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LED 무빙라이트는 CLAYPAKY와 **JB-LIGHTING** 사 제품을 소개하였으며, 이번에 JB-LIGHTING 사의 신제품 P15를 전시하였다. P15는 1,000W LED 광원을 이용한 동급 제품 중 가볍고 최저 소음을 내는 제품으로 조용한 동작 상태를 보여주었다.



동서테크놀로지 부스 전경



JB-LIGHTING P15

FOLLOW-ME System



AVOLITES Diamond 7-330



IVL 레이저 조명기기 시연



LED Follow Spot

조명 콘솔 제품으로는 **AVOLITES** 사의 신제품 Diamond 7 을 전시하였다. 기존 Diamond 9보다 가볍고 이동 설치에 용이하도록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FOLLOW-ME System**은 기존에 비해 업그레이드되어 UWB(Ultra Wide Band)를 이용한 자동 추

적시스템으로 출시했다. 공연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출연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조명기기를 제어, 출연자에게 조명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제품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동서테크놀로지는 **IVL** 사의 레이저 조명기기, 조명용 트러스 및 1,400W급 LED Follow Spot 등 다양한 조명기기 등을 전시하였다.

사운드플랫폼



사운드플랫폼 부스

국내 AI 기반 음향 기술 기업 사운드플랫폼은 AI 마스터링 솔루션 **Munute**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마스터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스에서는 Munute의 최신 버전과 B2B 전용 솔루션을 선보이며, 부스 한쪽을 참관객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AI 마스터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Munute은 오디오 마스터링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다. 사용자들은 전문적인 음향 지식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고품질의 마스터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오디오 엔지니어들의 작업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Munute은 실제 음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음원의 밸런스를 정교하게 조정하고,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음질을 제공한다. 



Munute UI